

# Meet the Global LINERS



## Engineering

14 / 20

신기용 / Server-side Engineering / Korea

기용님은 2019년 신입공채를 통해 LINE에 입사한 후, LINE Pay 서비스의 백엔드 개발 담당으로 2년 째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안을 받은 후, 즐거웠던 신입사원 연수 시절의 기억부터 담당해 온 모든 프로젝트들을 차분히 떠올려 보며, LINE에서의 생활과 배움이 참 즐거운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기용님. LINE에서 어떤 즐거운 경험들을 해오셨는지 함께 만나 보시죠.



### 잠깐! 한 눈에 보는 세 줄 요약!

- 기용님은 LINE Pay 서비스의 백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 어느 기업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신입사원 해외 연수 스케일이 바로바로 LINE 문화의 자랑!!
- 기용님의 LINE STYLE은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즐거움'이라는 것!

## 업무에 관한 이야기

### Q 기용님이 담당하고 있는 LINE Pay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LINE Pay는 크게 결제, 송금, 정산/통계와 쿠폰과 같은 유저 혜택을 담당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외부 카드사 및 은행과 연계한 결제 관련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결제 수단을 서비스 내에 추가하는 작업이나, 외부 업체(카드사/ 은행사) 등 다른 서비스와 LINE을 연동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ISA 등 어떤 결제 카드로 상품을 결제할 때, 카드 인증을 하는 과정에 대한 개발과 결제 수단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대만 택시 서비스의 LINE Pay 결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도 참여했었는데요, 택시에서 카드 결제 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결제를 조정하는 과정의 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 Q LINE Pay 서비스의 백엔드 개발자이기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Pay 서비스는 보안이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때문에 Pay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특정 네트워크망에 서버를 구성하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등 보안적인 측면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결제 서비스는 결제의 순간에 작동하지 않으면 유저 입장에서 큰 불편을 느끼고 서비스를 떠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사소한 것에도 더 특별히 꼼꼼하게 신경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Pay 도메인의 특성상 코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예상하지 못한 에러가 혹시 발생하지는 않을까 미리 고민하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 Q 타 직군/부서와의 협업 시 기용님이 가장 포인트를 두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서로 같은 업무에 대해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

### Q 가장 기억에 남는 성취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사용자가 Pay 서비스 가입 시 카드 인증의 조건이 추가되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스펙에서 무

고 협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발에 특화된 단어를 사용하다 보면, 다른 직군 담당자분들께서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저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직군 담당자분들과도 많은 협업이 있다 보니 서로 이해하는 정도가 각기 달라 그것을 맞춰나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려다 보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타자를 치는 손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웃음) 메신저 등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에는 특히 대화 상대와 싱크가 잘 맞았는지, 너무 제 입장에서만 작성한 표현은 없는지 대상자에게 한 번씩 체크해보기도 합니다.

근거 주시려는 시나리오는 억압이나 보편, 개별 환경과 실제 결재 환경에서 미리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연히 생각해보면 '카드 인증 조건이 추가된다'는 간단한 기능의 개발 작업이지만, 막상 코드를 짜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게 되는 순간이 생기고, 실제 환경에 배포되었을 때 에러를 줄이는 디버깅에도 섬세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챙겨가면서 더 편한 조건으로 코드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등을 경험할 때 저는 성취감을 얻는 것 같아요. 늘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한 경험이 카드 인증 시나리오의 개발 작업이라 해당 작업을 성취의 순간으로 뽑아보았습니다!



## 역량에 관한 이야기

### Q 기용님의 업무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의 원인을 체크하고, 더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스스로가 개발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점점 더 넓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부생 때 경험하는 개발과 회사에서 경험하는 개발의 깊이가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입사 후 회사에서 실제 프로젝트들 개발하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많이 마주했던 것 같고, 솔직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LINE에는 주위에 훌륭한 동료 개발자분들이 많으시기에 문제에 대해 조금 고민해보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편하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저 혼자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언을 구하면 금방 끝낼 수 있는 작업들이 많은데, 스스로 한 번씩 더 고민해보는 끈기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개발 업무에 임한다면 역량적으로 더 많이 성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LINE에서의 특별한 경험

### Q LINE 입사 후 (복리후생/문화 측면에서) 놀랐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압도적으로 다 1등이에요. 진심입니다. 근무 환경이 TOP클래스예요. 개발 장비들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느낄 수 없도록 완벽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허언멀러 의자도 정말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냥 완벽해요. 어떻게 보면, 깨어 있는 시간 중 많은 시간을 오피스에서 보내게 되는데, 편안함이 보장되다 보니 근무환경은 그 어떤 부분보다도 만족감이 높아요. 대만족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자들 간 코드 리뷰를 주고받을 때, 영어로 피드백을 하게 된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코드 리뷰가 완료되어야 코드를 머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어로 리뷰를 하게 되면 감정적인 것은 배제할 수 있고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 Q 적응하기 힘들었던 점도 있으셨을 텐데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LINE 메신저 등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요. 업무할 때 담당자 간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메신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신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입사 초기에 팀원분께 퇴근 전 인사를 드렸을 때 놀란 적이 있어요. 팀원분께서 퇴근 때는 인사하지 않고 가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직장 생활이 이런 것인가? 뭔가 살짝 충격이었습니다(웃음).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회사'와는 너무 달라서 당황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가 업무에 충실하고 지장 없도록 한다면 그 외적인 부분은 터치하지 않으면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문화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Q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신입사원 연수 기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동기들과 함께 일본행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신입사원 교육의 일환으로 해외 연수를 가볼 기회를 얻게 되어서 애사심이 절로 높아진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신입사원 연수 2일차의 미션 수행 시간이었는데, HR 교육팀에서 만들어주신 미션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팀원이었던 동기들과 미션들을 차례로 수행해 나가면서 동기들과 더 금방 친해질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 마무리하며

### Q 앞으로 LINE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블로그 하는 것을 좋아해서 LINE Engineering 블로그에 글을 기고하는 것이 지금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글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아직은 스스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LINE에서 더 많은 경험으로 조금 더 성장한 개발자가 되면 글을 기고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먼저 글을 작성하고, 팀원 분들께 검토를 받아, 제 글이 기고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저 스스로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 Q 본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해 주세요.

Fintech 분야의 경험이 없으시다고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LINE STYLE 항목은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즐거움'이라는 항목인데요, 실제 LINE은 개개인에게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이기에 분야에 대한 경험보다도 개발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신입으로 이 분야에서 시작한 만큼 많은 분이 쉽게 적응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Relevant Po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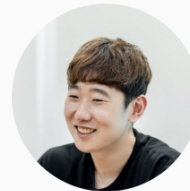
안혜경 / KR  
Server-side Engineering



김민정 / KR  
Database Administration



임준석 / KR  
Machine Learning



안종윤 / KR  
iOS Engineering